

“

## 결코 늦지 않은 고백 성 론지노

”

글\_서희정 마리아 | 그림\_홍미현 세레나



### 〈유대인들의 임금〉

난 십자가 위 명패를 한참이나 올려다봤다. 그동안 ‘위대한’ 로마의 병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봤지만, 이 예수라는 자는 여간 재미있는 게 아니다. 명패에 새겨진 죄목만 봐도 알만하지 않은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를 않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지를 않나.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면 사기꾼인 게 틀림없다.

“목마르다.”

거 참, 십자가 위에서까지 성가시게 하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어찌겠는가? 신 포도주를 묻힌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서 예수 입에 갖다 대 주었다.

“옳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

내 말에 주변 사람들이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허풍 떨던 그때는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축 늘어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거라 생각하니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눈물까지 찔끔 거리며 웃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나와는 다른 공간에 있는 듯, 오로지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과 그들이 모은 두 손을 보자니 저절로 웃음기가 사라졌다. 하긴,

저자도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소중한 사람이었겠지... 그나저나 완전히 숨이 끊어지면 며칠이 걸릴 텐데 그 시간을 저들은 어떻게 견디려 하는지 살짝 걱정되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구름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 소나기가 오려는가 싶었는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게 아닌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이로움! 이것이 바로 저들이 믿는 하느님의 존재인가?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듯, 평온해 보이는 그 얼굴... 그 순간, 예수가 내 영혼으로 밀려들어 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깨달을 겨를도 없이 상부의 명령이 떨어졌다. 명령대로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 그리고 물이 흘러나왔다. 그렇다! 그것은 분명, 피와 물이었다. 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우리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가? 이 사람들은... 우리는! 대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가? 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신성불가침 합니다”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신성불가침 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느님께 속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들을 당신 손수 그들을 빚으시고 엮으셨으며, 그들이 형상조차 생기지 않은 작은 태아일 때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 태아들 안에서 이미 장차 성인이 될 그들을 보십니다.(생명의 복음 62항)

글\_생명위원회